

■ 70년전 광주·전남은 - 조선총독부 통계

호흡기 질환 사망 최다

70년 전 광주·전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통계청은 최근 일제시대인 1938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를 통해 70년전 광주·전남의 인구, 질병, 결혼과 이혼, 조세 등 전라도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보자.

인구 전국 14.9% → 2007년엔 6.7%로
혼인을 절반 줄고 이혼율은 5배나 증가

1938년 광주·전남지역(당시 행정구역은 전라남도) 사망자는 3만 483명. 사망 원인은 ▲호흡기질환 24.5%(3천172명) ▲전염병 및 기생충감염 19.8%(2천568명) ▲소화기질환 17.0%(2천198명)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 16.8%(2천183명) 순이었다.

반면 현재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은 1.5%(197명)에 불과했고, 2·3위인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은 정도로 미미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암 사망자는 5천724명이었다. 결핵 등 폐질환과 전염병·기생충에 의한 사망이 1.2위를 차지한 것이 현재와 대조적이다. 식생활·생활환경의 변화가 사망 원인에 엄청난 변화를 준 것이다.

지난 70년간 전국 인구(남한 기준)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4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 인구 유출과 호남 소외에 따른 낙후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당연히 광주·전남이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똑 떨어졌다. 70년 전 광주·전남 인구는 남한 인구의 14.9%였으나 2007년 현재는 6.7% 수준이다.

1938년 남한 인구는 1천525만9천713명, 현재(4천845만6천369명)의 3분의 1 정도다. 이중 광주·전남 인구는 227만8천787명으로, 남한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2007년 현재 광주·전남 인구는 325만1천711명. 70년간 전국 인구가 3배 증가하는 사이, 광주·전남

인구는 42.7%(97만2천924명) 늘어난 것이다. 일본인 거주자는 4만 4천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5% 가량이었으며, 중국인과 기타 외국인 인은 각각 433명, 73명이었다.

70년 사이 혼인율과 이혼율은 급격한 증감현상을 보였다. 1938년 광주·전남에서는 2만5천627명이 결혼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이 9.7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남의 조혼인율(5.4)보다 4.3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70년새 혼인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조이혼율은 5배나 높아졌다. 1938년 광주·전남에서 이혼한 사람은 1천247명으로, 조이혼율은 0.47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전남의 이혼은 7천397건에 달했고, 조이혼율도 2.3까지 치솟았다.

이밖에 광주·전남은 1938년 전국 총 도세(2천688만5천853원)의 9.9%(268만4천229원)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3%(410만6천534원)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0%(296만3천740원) ▲경남 10.9%(291만8천352원) 등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12 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13일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여수박람회 유치에 기원하는 '희망의 돛' 출항식이 열렸다. 해양소년단 어린이들이 정찬용 여수박람회유치부 위원장에게 여수의 꿈을 담은 '희망의 돛'을 전달하고 있다. /위치경기자 jrwi@kwangju.co.kr



여수엑스포 부동표 공략 총력

각국 BIE 대표 초청 파리서 '한국문화의 밤'

'희망의 돛' 출항...유치 염원 전국에 메아리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2일 남은 가운데 정부가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고 부동표 국가를 중심으로 최종 득표전을 전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14일 2012세계박람회유치위는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활동의 수석 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파리에 도착해 당일 밤 BIE(세계박람회기구)대표 등 300여명을 초청해 '한국문화의 밤'

을 개최하는 등 개최지 발표까지 각국 BIE대표를 대상으로 마지막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재철 유치위 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도 오는 21일(한국시간) 출국해, 현지에서 BIE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BIE 대표단은 현지 도착 직후인 21일 오후 7시(이하 현지시간) 1차 전

략회의를 갖고 총회에 임하는 최종 대책을 마련하며 이튿날부터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을 벌인다. 이어 25일 오후 2시에는 26일 시작되는 총회에서 실시할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유치위원회도 마지막 10여일 동안 총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15일부터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유치팀은 특히 모로코와 폴란드 등 유치경합국과 BIE회원국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점검해 즉각 대응하며 BIE 총회 배이스캠프 격인 주부 대사관과 함께 파리 현지 행사를 담당하고 있

는 부서는 매일 시나리오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4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희망의 돛'이 전국민의 염원과 함께 힘차게 올라 다시 한 번 유치열기를 달궜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인기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위 위원장, 김호영 외교통상부 차관, 오현섭 여수시장 등 3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망의 돛' 출항식은 여수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열기로 가득찼다. 이날 행사에서 유치위원회에 전달된 메시지는 BIE 총회 참석자 출국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에 전달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신당, 통합 역풍 일단 봉합

민주당과 후속 협상 착수...1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전격적인 통합 선언 이후 상당한 내부 역풍에 직면했던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원샷 통합(정당통합+후보단일화)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은 양당 대표와 협상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후속통합 협상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민주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상임고문단-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3시간 동안의 마라톤 논의 끝에 지난 12일 민주당과 민

주당의 통합 및 후보단일화를 위한 4자 회동의 뜻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통합 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4자 회동 합의선언에 따라 조속히 후속 실무협상을 진행하자는 정 후보 측과 통합 조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신당 내부의 친노 진영 및 시민사회세력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통합 역풍이 수그러든 것은 대선 후보를 상체 낼 수 없다는 민주당

당 내부의 여론과 범여권이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는 정동영 후보의 호소, 민주당의 유연한 협상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의 원샷 통합의 후폭풍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후속 협상의 성격과 방향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는 물론 민주당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겨져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당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통합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 수능 일제 실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80개 시험장(중·고교)에서 수험생 58만4천934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된다. 광주·전남은 116개 시험장에서 3만4천310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관련기사 8면>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은 8시40분부터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5교시에 걸쳐 오후 6시55분까지 실시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의 출근시각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오전 8시 35분~8시58분(23분간) ▲오후 1시 5분~오후 1시35분(30분간) 두차례 시험장 주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유망한 미래, 명문교육을 선도하는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남부대학교 1000-1014 111-1111 111-1111

세상을 밝히는 미래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전남과학대학 1000-1014 111-1111 111-1111

innisfree